

구제역 영광 5km 접근...청정 전남 초진장

고창서도 발생...돼지 85두 거쳐간 담양 역학조사 나서 전남도, 반입 제한·통제 초소 설치 등 비상방역체계 돌입

구제역이 청정 전남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난해 4월 충남 홍성 일대에서 발생한 후 이달 들어 전북 김제와 고창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의 양돈 농가는 영광과 불과 5km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전남도는 14일 "전남 바로 인근인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 1934년 구제역 첫 검사 이후 지금까지 80여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과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던 전북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어벽'이 사라진 전남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전남 돼지 구제역 항체율도 54.1%에 불과, 전국 평균(64.2%)보다 낮아 한 번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의심축 발생 즉시 농가, 협회 등에 상황을 SMS나 문자로 전파하고 전북, 충남 등에서 생산된 우제품류는 도내 반입을 제한하는 한편 22개 모든 시·군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및 소독필증 발급 후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전

남도내 방역 대상은 모두 2만5000호에 154만2000두(소 48만8000두, 돼지 99만 7000두, 염소 5만3000두, 사슴 4000두 등)다.

또 전북 고창의 돼지 85두가 담양군 소재 한 도축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과 도축장 내외부를 소독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대규모 행사 개최 및 발생지역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농가 소독을 위한 예비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경계지역 4개 시·군은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구제역 백신 100% 예방접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과 인접한 시·군은 벌써부터 긴장 속에 비상방역체계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13일부터 차량유입 길목인 장성 IC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사료와 가축 운반 등의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764농가 4만 4648두에 대한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과 함께 돼지농가 등 구제역 취약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이란 점 때문에 최근 홍공에 전남산 한우고기 수출이 이뤄졌다"며 "구제역 확산으로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은 우제품류 가족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묻적이 생기며, 치사율이 5~55%에 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화 읽으며 푸드놀이 신나요” 14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동화와 함께하는 푸드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동화를 읽고 느낀 점을 식빵과 과자로 표현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혼여행 경비 등 역대 가로챈 여행사 대표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예비부부 수십 쌍의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혼부부 24쌍 등 여행객 60여명에게 여행 경비 1억7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광주와 전주, 창원 등지에서 열린 웨딩박람회 등에 업체 자격으로 참여해 신혼여행 및 단체여행 고객들을 유치한 뒤 항공권 요금, 호텔 예약금 등을 지급해

야 한다며 돈을 받고는 연락을 끊었다. 신혼부부들은 강씨가 차일피일 항공권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자 신혼여행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급하게 항공권을 마련하거나 여행지를 바꿔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또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직장예편 친구(36)를 꾀어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종적을 감추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실종 50대, 저수지 빠진 차안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50대 남성이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5시 사이 광양시 광양읍의 한 저수지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15m 깊이의 물속에 빠진 차를 인양하려 시도했지만 탁한 시야와 장비 문제 등으로 인양하지 못하고 14일 오전 10시 5분께 차량을 인양했다. 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는 소유주인 이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가족들은 '지난 10일 오후 7시 이후 이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12일 오전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씨의 평소 동선을 수색하다가 저수지에 대부분 잠겨 있는 차량을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 중 사고 가능성 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평양=박영진기자 pyj4079@

확김에...옥상서 아찔한 돌 투척

광주북부경찰, 30대 검거...인명피해는 없어

‘용인 캣맘 사건’과 같이 고층 건물 옥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돌맹이를 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분노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서 사건이 재차 발생하자 범인 검거를 위해 자체 CCTV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장 주변에 ‘경고판’ 등을 설치해 재차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북부경찰은 14일 고층 건물 옥상에서 사람과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진 혐의(특수폭행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사거리에 있는 7층 건물 옥상에서 인도와 도로를 향해 돌 2개를 던지는 등 지난해 12월 1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돌 5개를 던져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돌은 지름 12cm에 무게가 770g 정도로, 흔히 ‘차돌’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석영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북구 삼각산 일대에서 등산을 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돌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옥상 문이 열려 있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골목한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북구 문흥동 7층 건물 옥상에서 격주 토요일 오후 7시를 전후해 3차례에 걸쳐 4개의 돌을 던졌고,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북구 삼각산 동 4층 건물 옥상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뒤 제주도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사람들이 돌에 맞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김씨가 3차례 범행을 저지른 문흥동 사거리 일대는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어 토요일 저녁이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으로, 최초 범행 이후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씨는 검거 당시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차량에 돌 5개를 보관 중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오래전 떨어진 돌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험이 있다”며 “화를 풀기 위해 옥상에서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 CCTV가 없어 수사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체 CCTV를 설치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흔젓말처럼 “아이, X발”...대법 “모욕죄 아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술마신 40대 “난 벌금수배자” 신고 뒤 출동경찰 폭행

○“자신이 수배자 신분이 아닌데도 “나는 벌금 수배자다. 어서 잡아라!”며 신고한 뒤 실제 출동한 경찰이 잡아가지 않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쓴 4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홍모(49)씨는 전날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화장지구대 소속 김모(52) 경위의 오른쪽 뺨을 2차례 때린 데 이어 마구잡이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

○“홍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지난해 말 범인으로부터 벌금 선고를 받고도 여태 납부를 하지 않은 자신이 ‘벌금 수배자’ 신세가 된 줄 여기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아직 기한이 남아 수배자 신분이 아니니 귀가하라”라고 하자 “그럼 진짜 감방에 가련다”며 행패를 부리다 결국 공무원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화순RPC공장채권 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에서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